



중앙아시아 인쇄물 세일즈 ‘시동’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이충원)가 최근 ‘카자흐스탄도서전 참가 및 중앙아시아 인쇄시장 개척단’을 파견, 중앙아시아 지역 인쇄시장 개척에 물꼬를 텄다.

특히 이번 개척단에는 이충원 서울인쇄센터 이사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최창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주요 3단체장이 모두 참여해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4개 업체 모집 한국관 운영

서울인쇄센터는 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도서인쇄전(3rd International Book and Printing Fair)에 한국관을 설치해 교학사, 보진재, 타라티피에스, 한구아시아 등 4개 업체를 모집, 직접 참가했으며 순

환기확인쇄도 어린이용 퍼즐을 위탁 전시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국제도서인쇄전은 올해가 3회째로 CIS(독립국가연합) 지역 국가를 비롯한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국제전시회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 출판서적판매협회(Association of Publishers and Booksellers of Kazakhstan) 및 동전시회 당국의 초청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최고인쇄품질상’ 수상

이번의 전시회 참가는 성과도 컸다. 첫 참가였지만 서울인쇄센터에서 출판한 서적이 ‘최고인쇄품질상’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내 인쇄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카

자흐스탄을 비롯한 참가국 전체에 널리 알렸다. 또한 순환기확인쇄에서 위탁전시했던 어린이용 퍼즐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한국관은 매일 평균 30건 이상의 상담실적을 올리며 향후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시회 참가업체들은 상업인쇄 시장의 진출은 물론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기회가 커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교과서 시장 진출을 타진했다.

우크라이나 지역 교류 타진

카자흐스탄 국제도서인쇄전 참관 후 이충원, 홍우동, 최창근 회장 등 주요 3단체장은 우즈베키스탄 지역 시장조사에도 공동 참여, 출판·인쇄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인 우즈베키스탄 출판정보청

1. 바탈로바 카자흐스탄 출판협회장이 카자흐스탄 국제도서전 개막을 선언하고 있다. 2. 박성호 무역관과 전시회 참가대표들. 3. 서울인쇄센터관에서 상담중인 바이어. 4. 우즈베키스탄 출판정보청 방문 및 회담 모습 5. 서울인쇄센터관에서 이충원 이사장과 전시참가 업체 대표들의 기념촬영 6.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프로그램인 '우리민족' 리포터와 인터뷰하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7. 우즈베키스탄 출판정보청에서 기념촬영 8. 최고품질상 작품과 상패



(Uzbekistan Agency of Press and Information)을 방문,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구조련의 체제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런 이유에서 출판·인쇄는 아직도 국가의 통제하에 있으며 출판협회같은 민간단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판·인쇄는 전적으로 출판정보청의 관리 하에 이뤄진다. 전국에 대형 4개 회사 포함, 1100여개 출판·인쇄 업체들이 거의 모든 작업을 담당하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출판정보청의 직영회사 개념으로 운영된다. 다만 최근 가속되고 있는 개방화 바람으로 외국자본과의 합자회사 형태로 인쇄사들이 설립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진출 가능성도 높은 지역으로 평

가된다.

지난 12월 사전 시장조사 마쳐

이충원 서울인쇄센터 이사장과 이창열 고문은 카자흐스탄 교류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장조사를 사전에 마쳤다. 그 당시 이충원 이사장은 바탈로바 카자흐스탄 출판협회 회장과의 회담에서 국제도서인쇄전 참가를 요청받았다. 이후 지난 4월5일에는 그레고리 마르첸코 카자흐스탄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한국방문 때 카자흐스탄과의 교류를 확인했으며 이번의 도서전 참가로써 직접적인 교류의 첫발을 떼게 됐다.

한편, 서울인쇄센터는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카자흐스탄도서전에 지속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조갑준 차장〉

